

西晉 馬隆의 西征으로 본 八陣圖

洪 乙 杓 (江原大)

- I. 머리말
- II. 西晉의 八陣圖 활용
- III. 馬隆과 風后의 『握奇經』
 - 1. 마룡의 행적
 - 2. 마룡의 八陣總述
- IV. 마룡의 西征과 팔진도
 - 1. 병력 선발과 출전 준비
 - 2. 偏箱車의 운용
 - 3. 偏箱車와 八陣圖
- V. 맺음말

I. 머리말

後漢(서기25-220)의 혼란기에 의해 魏·蜀·吳로 분열된 삼국시대는 저마다 천하 재통일을 목표로 삼고 부국강병을 모색하였으나 창업주와 개국공신들의 잇단 죽음으로 인하여 어느 한 나라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당한 촉한의 제갈량(181-234)은 南蠻의 孟獲을 굴복시키고 曹魏를 공략해 司馬懿와 魏軍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으나 五丈原의 진중에서 죽음으로써 천하통일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八陣을 혁신하여¹⁾ 만든 八陣圖의 戰法은 당나라 이후 실전되었다고 하지만 후세 군사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삼국 중 曹씨가 세운 魏나라는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하여 서기 263년에 劉씨가 세운 촉한을 멸망시켰지만 바로 그 해 12월에 권신 司馬炎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위나라를 멸망시킨 사마씨들은 국호를 쥘

1) 中國軍史科學, 『中國軍事通史』 7권 (中國 軍史科學院, 2005), p.435.

이라 하며 孫씨가 세운 남쪽의 오나라와 일시적으로 천하를 양분하는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 두 나라 중 남방의 동오는 孫權이 죽은 뒤 내분이 끊이지 않아 자국의 존립여부도 보장받기 어려웠기에 북벌하여 천하통일을 이루는 꿈은 멀어져갔다. 반면 북방에서 진나라를 건국한 武帝(265-290) 사마염은 오나라를 점령하여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고자 인재들을 모으며 국력을 기르고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南征하려던 시기에 西涼의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계획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²⁾

중국 북방의 이민족들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위협이 되어 왔다. 한 고조 劉邦은 白登山에서 흉노의 목특에게 포위되었다가 陳平의 계략을 채택하여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으나³⁾ 이후에도 오랫동안 흉노에게 和蕃公主를 헌상하며 화친을 유지해야 했다. 漢武帝 때는 衛青과 霍去病 등이 흉노를 정벌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포위당한 李陵은 흉노에게 항복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⁴⁾ 후한 和帝(88-105)의 永元 원년(89)에는 竇憲이 흉노가 분열된 기회를 이용하여 팔진법을 이용해 일시 평정하였으나⁵⁾ 완전히 제압된 것은 아니었다. 북변의 위협은 삼국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되었기에 진 무제가 동오를 정벌해 천하를 통일을 하려 해도 북쪽의 이민족들을 제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후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오래 전부터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왔으나 그들은 騎

2) 房喬, 『晉書』(『文淵閣四庫全書』, 臺灣 商務印書館 影印本, 1983; 이하 『四庫』로 약칭) 255冊, p.943의 上右, “泰始中, 將與伐吳之役…帝每有西顧之憂, 臨朝而歎.”

3) 司馬遷, 『史記』 卷一百十(『四庫』 244冊), p.74의 上右-上左, “匈奴列傳 第五十…高帝先至平城, 步兵未盡, 到冒頓縱, 精兵四十萬騎, 圍高帝於白登, 七日, 漢兵中外不得相救餉…高帝, 乃使使間厚遺閼氏…乃解圍之.”

4) 위의 책, 卷一百九(『四庫』 244冊), p.734의 上左, “陵, 既至期還, 而單于, 以兵八萬圍擊陵軍, 陵軍五千人, 兵矢既盡, 士死者過半…陵曰, 無面目報陛下, 遂降匈奴, 其兵盡沒, 餘亡散得, 歸漢者, 四百餘人.”

5) 范曄, 『後漢書』 卷五十三(『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迪志文化出版; 이하 『電庫』로 약칭하며 쪽수 표기를 생략함), “勒以八陣, 莅以威神.”

射를 잘하였기에 중국의 군대로는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그래서 진 무제 역시 서량의 반란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마룡은 兗州에서 직급이 낮은 무관이었으나 의협심이 강하였기에 추천을 받아 진의 조정에 入仕한 인물이다. 그가 자청하여 서량을 평정하겠다고 하자 다른 방안이 없던 무제는 그에게 서량 문제를 일임했고, 마룡은 3,500명이란 적은 병력으로 八陣圖의 전법을 사용하여 서량 평정을 성공시켰다. 이 일은 후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명나라 張燁을 비롯한 고대 중국의 연구자들이나 조선의 梁垞은 마룡의 西征을 통하여 팔진도를 복원해 보고자 시도하기도 했다.⁶⁾

팔진도는 후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에 많은 문헌에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太白陰經』·『李衛公問對』·『武經總要』·『八陣合變圖說』·『屬武經總要』·『登壇必究』·『武備志』 등의 병서와 『宋書』·『南齊書』·『舊唐書』·『新唐書』·『宋史』·『元經』·『資治通鑑』·『冊府元龜』·『玉海』·『子略』·『葉八曰易傳』·『周禮集說』·『周禮翼傳』·『周禮註疏刪翼』·『五禮通考』·『左傳折諸』·『經稗』 등의 문헌에서 이에 대한 연구들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고, 조선에서는 『陣法』·『演機新編』·『握奇圖說』 등에서 八陣을 연구하였다.

오늘날 진법에 대한 논문들은 적지 않으나 팔진도의 원리를 분석한 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국의 연구로는 余大吉이 쓴 「諸葛亮的八陣圖及陣法試探」⁷⁾과 譚良嘯의 「再論諸葛亮八陣圖」,⁸⁾ 李伯助의 「古代八陣淵流及諸葛亮八陣考略」,⁹⁾ 田昭林的 「諸葛亮的八陣圖」,¹⁰⁾ 宦書亮의 「

6) 趙本學·俞大猷, 『屬武經總要』(『中國兵書集成』(이하 『兵集』으로 약칭) 17冊, 北京: 解放軍出版社 影印, 1994), pp.351-357; 茅元儀, 『武備志』(『兵集』 29冊), pp.2329-2337; 梁垞, 『握奇圖說』(刊寫者 年度 未詳), 28-30장.

7) 余大吉, 「諸葛亮的八陣圖及陣法試探」(『中國史研究』 第三期, 1994).

8) 譚良嘯, 「再論諸葛亮八陣圖」(『天府新論』 第四期, 1997).

9) 李伯助, 「古代八陣淵流及諸葛亮八陣考略」(『成都大學學報(社科版)』 第1期, 1998).

10) 田昭林, 「諸葛亮的八陣圖」(『軍史歷史研究』 第二期, 1999).

諸葛亮八陣圖探蹟」¹¹⁾ 등을 열람해 볼 수 있었으나, 위따지나 량샤오소는 『李衛公問對』와 『삼국지연의』에 언급된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리 바이쉬은 先秦 시기의 陣이 漢魏의 팔진과 연계되는 과정, 晉과 남북조시대 운용된 제갈량의 팔진도에 대한 설명, 당 태종과 이정희의 문답, 송나라의 팔진 연구에 대한 기록들을 소개하여 진법의 역사를 개관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티엔 자오린은 예로부터 통칭되어 온 팔진과 제갈량의 팔진도는 다르다고 하며 제갈량은 약 6미터 길이의 木柄輪과 7.5미터 길이의 竹柄輪에 다수의 궁노병을 운용했다고 보았고, 환 수량은 팔진은 제갈량이 창안한 것이 아니며 제갈량 이후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 논문은 대부분 팔진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쳐 팔진의 실체나 그것을 전장에 어떻게 운용했는가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못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연구는 불모지에 가깝다. 다만 필자가 발표한 몇 편의 글¹²⁾이 있을 뿐이다. 일본 측 연구 성과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글은 마룡의 서량 원정을 통하여 팔진도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관련 사료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II. 西晉의 八陣圖 활용

고대 중국의 진법에는 시대에 따라 수많은 이름들이 출현했지만 모두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明나라 章潢은 “師의 卦(팔괘 진 즉 팔진)는 군대의 진을 뜻하며 천지자연의 조화를 보고 만든 것이

11) 宦書亮, 「諸葛亮八陣圖探蹟」(『南昌大學學報(人社版)』第1期, 2003).

12) 홍을표, 「風后의 握奇經 연구」(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고대 陣法の 원리」(『軍史』 제7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제갈량의 八陣法 탐구」(『군사논단』 제65호, 한국군사학회, 2011); 「명나라 후기 척계광의 ‘원앙진’과 팔진 원리」(『軍史』 제8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지 성인이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만든 것은 전혀 아니다. 이후 여러 학파마다. 握奇陣…魚麗陣·荊尸陣·崇卒陣…八陣…六花陣…常陣 등으로 그 이름은 달라도 어느 것 하나 師卦陣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은 것이 없다.¹³⁾라고 하였다. 제갈량이 의해 혁신된 八陣圖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¹⁴⁾ 제갈량이 살았을 때는 魏軍과 司馬懿를 두렵게 했을¹⁵⁾ 정도로 당시에는 무적의 戰法이었다고 한다.¹⁶⁾ 그러나 제갈량이 죽자 촉한에서는 더 이상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姜維가 제갈량의 뒤를 이어 촉한의 부흥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환관 黃皓의 농간에 의해 뜻을 꾀지 못하였고, 암약한 後主(223-263) 劉禪은 황호에게 농락당했기에 국운이 기울어 가다가 서기 263년 위나라 장군 鄧艾가 成都를 기습하자 유선은 등애에게 항복하였고 北地王 諶은 울분을 토하며 유비의 사당에서 자살하였다.¹⁷⁾

제갈량의 팔진도 전범은 촉한이 망한 이후 전승국인 魏나라에 넘어갔으나 西晉이 위나라를 멸망시킨 뒤에는 팔진도를 입수하여 무장들에게 학습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晉書』는 그에 대한 일을 다

13) 章演 撰, 『圖書編』 卷一百十六 (『電庫』 所收), “師卦陣記. 因師之卦, 而爲師之陣, 卽師之象, 而有師之名. 皆天地自然之造化, 聖人無一毫私智, 雜於其間也. 自後諸家曰, 握奇陣, 曰五行三才陣, 曰兵農陣, 曰魚麗陣, 曰荊尸陣, 曰崇卒陣, 曰鶴父陣, 曰內政陣, 曰握奇營陣, 曰乘之陣, 曰象棋陣, 曰垓下陣, 曰八陣, 曰扁箱車陣, 曰六花陣, 曰四門斗底陣, 曰十二將兵陣, 曰十二辰陣, 曰平戎萬全陣, 曰常陣, 其名雖殊, 孰非師卦之推演乎.”

14) 八陣과 八陣圖의 관계는 洪乙杓, 「명나라 후기 칙계광의 ‘원앙진’과 팔진원리」, p.170을 참고할 수 있음.

15) 楊時偉 編, 『諸葛忠武書』 (『四庫』 447冊, p.182), “十二年, 丞相亮…甘受畏. 蜀如虎之, 譏巾幗婦人之辱.”

16) 陳壽, 『三國志』 蜀志卷五 (『四庫』 254冊), “更戰, 七縱七禽, 而亮猶遣獲, 獲止不去, 曰公天威也. 南人不復反矣…軍退, 宣王, 案行其營壘處所曰, 天下奇才也.”; 李靖, 『李衛公問對』 (『四庫』 726冊 pp.146의 하좌-147의 上右), “陣間容陣…諸葛亮, 以石縱橫, 布爲八行方陣之法, 卽此圖也.”; 曾公亮, 『武經總要』 (『四庫』 726冊, p.320의 上右), “昔, 諸葛亮, 推衍八陣, 得其新意, 以蜀巴弱卒數萬, 東屯渭水, 天下震動. 司馬宣王, 以十萬之衆, 抗之堅壁, 不敢出會.”

17) 陳壽, 『三國志』 (『四庫』 255冊), “是日, 北地王諶, 傷國之亡, 先殺妻子, 次以自殺.”

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에 앞서 陳懿은 文帝에게 기대를 받았는데 유달리 재능이 탁월하여 군령을 명확히 이해하였다. 문제가 晉王이 되자 군대를 관리하는 일을 믿고 맡겼다가 축한을 멸망시킨 후에는 제갈량의 진법과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 甲乙校標幟로 지휘하는 요령 등을 진협에게 주라는 영을 내렸다. 진협은 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숙달했다. 드디어 진협은 궁궐 안의 군대를 관리하는 中郎將이 되었다가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세월이 흐르자 武帝(265-290)가 출입할 때마다 白獸幡을 들고 어가의 좌우에서 의장대들을 지휘했는데 진협이 지휘하는 부대는 진형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기강이 매우 삼엄하였다.¹⁸⁾

위 내용은 진협이 제갈량의 진법을 학습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진협의 재능이 뛰어난 것을 본 사마소는 평소 그를 총애하다가 촉나라를 멸망시킨 뒤에는 촉에서 입수한 제갈량의 진법을 진협에게 주어 배우게 하였다. 이때 진협이 공부한 제갈량의 진법은, 포진 방법과 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응용술(圍陣用兵倚伏之法) 및 깃발로 각급부대의 지휘관들을 지휘하는 방법(甲乙校標幟) 등이라고 하였다. 사마소에게 제갈량의 진법을 받은 진협은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숙달하였다. 이후 진협은 궁궐 의장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다가 사마소가 죽은 뒤 그의 아들 司馬炎이 魏나라 元帝로부터 제위를 찬탈해 황제가 되자 출입할 때마다 乘輿의 좌우에서 백수번을 잡고 의장대들을 지휘하였다. 그는 제갈량의 용병법에 따라 지휘하였기에 의장대의 진열은 매우 정렬되어 있고 엄숙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과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제갈량이 혁신한 팔진법의 일면을 탐색해 볼 수 있다.

太康(280-289) 말에 무제가 평 사냥에 나가자 진협은 이때도 都水使가 되어 따라 나갔다. 車駕를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각자 사냥을 하다가 날

18) 房玄齡, 『晉書』 卷二十四 (『四庫』 255冊, pp.439의 下左-440의 上右), “先是, 陳懿, 爲文帝所待, 特有才用, 明解軍令, 帝爲晉王, 委任使典兵事, 及蜀破後, 令懿受諸葛亮圍陣用兵倚伏之法, 又甲乙校標幟之制. 懿悉闇練之, 遂以懿爲殿中典兵中郎將, 遷將軍. 久之, 武帝每出入, 懿持白獸幡, 在乘輿左右, 鹵簿陳列齊肅.”

이 어두워지자 사냥을 끝내기 위해 분산된 거가들을 소집했으나 시간이 지나도록 모여들지 않았다. 그러자 무제는 진협에게 군사들을 집합시키라고 하명하였다. 이에 진협이 백수번을 들어 흔들자 잠깐 사이에 집합이 완료되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진협의 통솔력을 칭찬했고 진협에 대한 무제의 신임은 매우 두터웠다.¹⁹⁾

이 글을 통하여 제갈량의 팔진도는 일사불란하면서 신속 정확한 통신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제의 사냥에 따라 나간 군사들은 황제와 고관들의 사냥을 돕기 위해 각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통제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다른 사람들은 군사들을 집합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진협이 백수번을 한 번 흔들자 그 신호를 본 군사들은 잠깐 사이에 집합되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진협의 지휘통솔력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이로써 제갈량의 진법은 부대를 조직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조직을 지휘하는 체계 역시 주도면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협은 왜 백수번을 갖고 다녔을까? 그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문헌들에서 풀어 볼 수 있었다. 한 예로 송나라 曾慥가 편찬한 『類說』에 의하면,

제갈량과 사마의가 전쟁을 하게 되자 사마의는 무장을 갖추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파견해 제갈량의 동태를 살펴보게 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 온 사람이 보고 하길 “제갈량은 간소한 수레를 타고 첩으로 만든 두건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白羽扇을 들고 삼군을 지휘하는데 군사들은 그 백수선의 신호에 따라 진격하거나 정지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 보고를 들은 사마의가 탄식하면서 “名士로다”라고 말하였다.²⁰⁾

19) 위의 책, pp.439의 下左-440의 上右, “太康末, 武帝, 嘗出射雉, 懿時已爲都水使者, 散從車駕逼暗, 乃還漏已盡, 當合函停乘輿, 良久不得合, 乃詔懿合之, 懿舉白獸幡指麾, 頃臯之間, 而函成, 皆謝懿閑解, 甚爲武帝所任.”

20) 曾慥, 『類說』卷四十九 (『電庫』所收), “葛巾羽扇. 武侯與宣王, 治兵將戰, 宣王戎服蒞事, 使人密覘武侯. 乃乘素輿葛巾, 持白羽扇, 指麾三軍, 隨其進止, 宣王嘆曰, 可謂名士.”

위 글은 촉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출정한 사마의가 첩자를 보내 제갈량의 움직임을 탐지한 내용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하여 제갈량이 어떤 모습으로 전장지휘를 했는가를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첫째는 일국의 승상인 그가 타고 다닌 수레는 보통 사람들이 타는 장식없는 수레였고, 머리에 쓴 것은 가난한 선비들이 쓴 葛巾(솜으로 만든 두건)이었다. 이로써 그가 어느 정도 검소하였는가를 알게 한다. 둘째는 백우선을 갖고 군사들을 지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우선은 흰 깃털로 만든 부채이다. 이것은 멧을 내기 위한 사치품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흰색은 불빛이 없는 야간에도 잘 보이기 때문에 주야 겸용하기 위해 선택했던 지휘기구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검소하고 단아한 제갈량의 모습을 전해들은 사마의는 제갈량을 ‘名士’라고 했는데 이 말 속에는 그가 가볍게 상대할 수 없는 인물이란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위 글을 통하여 진협의 백수번은 진법을 운용하기 위한 도구란 것을 알게 한다. 다만 백우선 대신 흰 색 깃발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송나라 程大昌이 지은 『演繁露』²¹⁾ 王應麟이 쓴 『玉海』²²⁾ 명나라 曹學佺이 지은 『蜀中廣記』²³⁾ 등 여러 문헌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二十五史』는 『史記』 130권을 비롯하여 『明史』 332권까지 3,470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서 진법을 언급한 부분은 『後漢書』에 竇憲이 八陣으로 흉노를 격파했다는 기록과, 『三國志』에서 언급한 제갈량의 팔진도, 『晉書』에 기록된 진협과 마룡의 팔진도, 『宋史』에 서술된 송나라의 진법 연구, 『明史』에 수록된 척계광의 원앙진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당나라 李靖의 六花陣이 유명하지만 『舊唐書』

21) 程大昌, 『演繁露』 卷八 (『電庫』 所收), “羽扇. 語林曰, 諸葛武侯, 與晉宣帝, 戰於渭濱, 乘素車著葛巾, 揮白羽扇, 指麾三軍.”

22) 王應麟, 『玉海』 卷九十 (『電庫』 所收), “諸葛孔明, 持白羽扇, 指麾三軍.”

23) 曹學佺, 『蜀中廣記』 卷六十八 (『電庫』 所收), “方物記 第十…諸葛武侯與宣皇, 在渭濱將戰, 宣皇戎衣莅事, 使人視武侯, 乘素輿, 葛巾持白羽扇, 指麾三軍, 各隨其進止, 宣皇聞而歎曰, 可謂名士矣. 今成都 出羽扇, 攢雜烏毛爲之, 蓋其遺制也.”

』나 『新唐書』에는 육화진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진서』에 진협이나 마룡이 제갈량의 진법을 운용했다고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협과 마룡의 일은 후대에서도 관심사가 되었다. 한 예로 송나라는 황제까지 나서서 진법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던 시기가 있었는데,²⁴⁾ 이 때도 진협과 마룡의 고사는 비중있게 다루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다.

晉나라 때는 오직 진협과 마룡이 제갈량의 옛 진법 한두 가지를 사용했을 뿐이다. 마룡은 3,000명을 모병하여 서량을 평정해 그의 공적이 널리 드러났으나, 진협에 대한 일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校標幟라는 군대의 한 가지 기물만 사용했을 뿐인데도 여러 차례 혼란을 수습하였다. 부대 간에 다툼이 일어나 도성의 궁궐이 포위당하는 위협을 받았으나 白飛幡을 한 번 휘저으니 군사들은 모두 갑옷을 풀고 싸우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가 麾의 신호를 가지고 효력을 본 것이 여러 차례나 되는데, 누가 옛날의 진법을 일러 후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軍政은 일상생활이나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²⁵⁾

위 글은 陳傅良이 쓴 『歷代兵制』에 있는 내용 중 하나이다. 그는 ‘옛날에 사용했던 진법은 지나간 유물이 아니라 후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법과 같은 군사 분야의 제도들은 군대에서만 필요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이나 국가의 통치수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같은 시기의 章如愚가 편찬한 『羣書考索』²⁶⁾과 王應麟이 쓴 『玉海』²⁷⁾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문헌에서 찾아

24) 托克托 等修, 『宋史』 卷一百九十五 (『四庫』 283冊), “熙寧…九年四月, 帝與輔臣論營陣法, 謂爲將者少知將兵之理. 且八軍六軍皆大將居中, 大將警則心也. 諸軍四體也. 運其心智, 以身使臂, 以臂使指, 攻左則右救, 攻右則左救, 前後亦然則軍何由敗也.”

25) 陳傅良, 『歷代兵制』 卷三 (『電庫』 所收), “三國…晉之世, 惟陳懿·馬隆, 用諸葛亮古陣遺法, 畧試一二. 隆以募兵三千, 克平西涼, 厥功彌著. 總事雖不槩見, 然, 徒校標幟兵之一物耳, 更數大亂京闕圍逼, 而白飛幡一麾, 衆皆解甲不鬪, 麾號數信, 收效至此, 孰謂古法之, 不可施於後世, 而軍政之果, 無益於人國也.”

26) 章如愚, 『羣書考索』 後集 卷四十九 (『電庫』 所收), “兵門…晉之世, 惟陳懿·馬隆, 得諸葛亮古陣遺法, 畧試一二. 隆以募兵三千, 平西涼, 厥功彌著. 總事雖不槩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팔진법으로 통칭된 중국의 고대 진법은 시대의 구분을 떠나 일관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왔다. 그래서 후한의 두헌이나 촉한의 제갈량 이후에도 서진의 마룡은 팔진도 진법으로 涼州의 樹機能을 평정한 뒤²⁸⁾ 이를 바탕으로 『악기경』의讚을 지었으며, 唐나라 초기에 六花陣을 만들어 돌궐을 격파한 李靖 역시 자신의 육화진도 제갈량의 팔진법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⁹⁾

Ⅲ. 馬隆과 風后의 『握奇經』

1. 마룡의 행적

마룡은 魏晉 시기에 東平 平陸(지금의 汶上) 사람으로 字는 孝興이다. 소년 시절부터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였으며 명예를 중시하였다. 이룬 마룡에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그가 兗州에서 근무하고 있던 嘉平 3년(251)에 王淩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는데 연주자사 令狐愚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그러자 연주 사람으로 누구 하나 영호우의 시신을 거두워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마룡은 연주에서 武吏(지금의 부사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자신은 영호우의 愚客이었다고 하면서 사재를 털어 그의 유해를 거두어 염한 뒤

見，然徒校幟幟兵之一物耳。當涼關，倉皇之中，而白虎幡一麾，衆皆解甲靡弓，素信收斂，至此，孰謂古法，不可施之後世，而軍政之無益於國哉。”

27) 王應麟, 『玉海』 卷一百四十二 (『電庫』 所收), “兵制…陣法…薛氏曰, 漢都肄已有孫吳六十四陳, 竇憲嘗勒八陳, 擊匈奴. 晉馬隆, 八用八陣, 以復涼州. 陳懿, 持白虎幡, 以武侯遺法, 教五營士, 是則武侯之前, 既有八陳, 後亦未嘗亡也. 今有馬隆, 握奇圖, 贊其傳, 起於風后, 嚴從曰, 武侯所習, 風后五圖也. 桓溫云, 是常山蛇勢, 徒妄言耳. 常山蛇者, 法出孫子, 謂之率然, 蓋高直陣也.”

28) 房玄齡, 『晉書』 (『四庫』 255冊, pp.942의 下左-944의 上右).

29) 李靖, 任孔閃 注譯, 『唐太宗李衛公問對』 (『中國經典兵書』, 山東友誼出版社, 2002, 上卷), p.691, “臣所本諸葛亮八陣法也.”

장례를 지내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3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묘역 옆에 소나무와 잣나무 등을 심고 가꾸었다. 3년은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그는 예의를 다하여 복상 기간을 채우고 나서야 돌아왔다. 이러한 마룡의 행동은 미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연주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시 관아에 돌아 온 마룡은 武猛從事에 임용되었다.³⁰⁾

영호후가 왕능과 관련되었다고 처형된 상황이라 영호후와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었지만 마룡은 자진해서 죄인의 시신을 거두고 시묘살이까지 했다. 이것은 생명을 건 모험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로부터 그가 보통사람과 다른 소신과 대담한 기개를 갖고 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마룡은 武威 태수에 임명되어 출정 11개월 만에 서량을 평정시켜 진 무제로 하여금 동오를 공격할 수 있게 하였다.

太熙 元年(290), 진나라 조정은 마룡의 공을 높여 奉高縣侯에 봉하고 東羌校尉를 제수하였다. 마룡이 隴右 지역을 지킨 지 10여 년이 지나자 그 지역은 매우 안정되었고 마룡의 명성은 크게 떨쳤다. 이 시기에 마룡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악기경』의 八陣總述을 쓴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낙양태수이던 馮翊 출신의 嚴舒는 楊駿과 인척을 맺고 있었는데 은밀히 마룡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조정에 상소하기를 마룡은 이미 늙어 치매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지키기 어렵다고 비방하며 후임자로 엄서를 추천하였다. 조정에서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 마룡을 불러들이고 엄서를 그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엄서가 현지에 부임하자 氏族과 羌族들이 대거 집결하여 다시 반란을 준비하였고 현지 백성들은 이 일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자 또 반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정은 엄서를 파면하고 다시 마룡을 복직시켰다. 그 뒤 마룡은 임

30) 房玄齡, 『晉書』 卷57 (『四庫』 255冊, pp.942의 下左-943의 上右), “列傳第二十七…馬隆…署武猛從事.”(이 때 令狐愚는 죽은 지 이미 2년이나 지났으나 이 반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剖棺斬屍의 형벌을 받았다.)

지에서 세상을 떠났다.³¹⁾

마룡의 아들 馬咸도 아버지를 닮아 효용하였다. 八王의 亂³²⁾ 때 成都王 穎이 長沙王 乂를 공격하자 마함을 鷹揚將軍에 임명하고 부대를 주어 河橋의 中渚에 주둔시켰다. 이때 馬咸은 乂의 장수인 王瑚에게 패하여 진중에서 죽었다.³³⁾

이상이 마룡과 그의 아들 마함에 대한 행장기의 전부이나 이를 통하여 마룡의 용기와 의협심, 그리고 그의 덕망을 일견할 수 있다. 마룡이 해임되자 氐羌 사람들이 반발하며 쯤의 조정을 위협했던 것은 용맹했던 마룡도 서량을 평정한 뒤에는 덕과 화합으로 다스르기에 오랫동안 인심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마룡의 八陣總述

『握奇經』은 黃帝의 신하 風后가 저술한 이래 周나라의 개국공신 呂尙, 춘추시대의 范蠡, 전국시대의 樂毅, 前漢의 公孫弘 등이 주석을 달고, 서진의 마룡이 述讚한 진법의 宗典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것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고증학이 출현했던 清代의 학자들은 옛 문헌들을 고증하며 그 출전을 의심한 사례가 많았는데 『악기경』에 대해서는 “당나라 이후 好事家들이 제갈량의 팔진법을 추언하여 글을 짓고 풍후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³⁴⁾라고 하였다. 반면에 당태종이나 李

31) 房玄齡, 『晉書』(『四庫』 255冊, p.944의 上右-上左), “太熙初, 封奉高縣侯 加授護東羌校尉. 積十餘年. 威信振於隴右. 時洛陽太守馮翔, 嚴舒與楊駿通親, 密圖代隆, 毀隆年老, 謬老不宜服戎, 於是徵隆, 以舒代鎮, 氐羌聚結, 百姓驚懼, 朝廷恐關隴復擾, 乃免舒, 遣隆復職, 竟卒於官.”

32) 八王의 亂은 晉惠帝(290-306) 때 汝南王 亮, 楚王 瑋, 趙王 倫, 齊王 冏, 長沙王 乂, 成都王 穎, 東海王 越, 河間王 顥 등이 권력 다툼한 일을 말한다.

33) 房玄齡, 『晉書』(『四庫』 255冊, p.944의 上左), “子, 咸嗣亦驍勇, 成都王穎, 攻長沙王乂, 以咸爲鷹揚將軍, 率兵屯河橋中渚, 爲乂, 將王瑚所敗, 沒於陣.”

34) 『握奇經』(『四庫』 726冊, p.2의 上右), “疑, 唐以來好事者, 因諸葛亮八陣之法, 推演爲圖, 托之風后.”

靖은 『악기경』이 黃帝의 진법이라 하였으며,³⁵⁾ 송나라 때 간행된 『武經總要』³⁶⁾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개인 연구자들의 저술로 명나라 때 쓰여진 『八陣合變圖說』·『屬武經總要』·『登壇必究』·『武備志』는 물론 조선의 『演機新編』까지도 풍후가 『악기경』을 지었다는 것을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³⁷⁾ 오늘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는 가려내기 어렵다.

『악기경』은 4개의 正陣과 4개의 奇陣으로 편성된 八陣을 설명하는 글이다. 정진이란 天陣·地陣·風陣·雲陣을 말하며 기진이란 龍飛陣·虎翼陣·鳥翔陣·蛇蟠陣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여덟 개의 진형은 衝·衡·軸과 遊兵을 운용하여 작전한다. 그러나 陣圖가 제시되지 않아 당송 때부터 악기팔진의 형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송나라에서 간행된 『무경총요』에는 <도1>과 같은 握奇陣形을 제시하였으나 명나라 趙本學은 이것을 보고 “한갓 握奇란 명칭만 알았지 악기의 의미는 잃은 상태에서 진을 편성하였으니 슬프다는 말이 옳지 않겠는가!”³⁸⁾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마룡 이후에 일어난 것들이다.

<도1> 『武經總要』의 握奇陣圖



출처 : 『四庫全書』 726冊, p.338.

『악기경』의 八陣總述에는 “晉나라

35) 李靖, 『李衛公問對』 (『四庫』 726冊, p.147의 上左), “太宗曰, 深乎黃帝之制兵也。後世雖有天智神略, 莫能出其闕闕。”

36) 曾公亮, 『武經總要』 (『四庫』 726冊, p.320의 上右), “昔, 諸葛亮, 推衍八陣, 得其新意, 以蜀巴弱卒數萬, 東屯渭水, 天下震動。司馬宣王, 以十萬之衆, 抗之堅壁, 不敢出會。”

37) 安命老,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刊寫 者年度 未詳), p.29, “九軍八陣圖說…黃帝之破蚩尤…八陣之法, 蓋始於此也。”

38) 『屬武經總要』 (『中國兵書集成』 17冊), pp.483-484, “徒知握奇之名, 而失握奇之義於制陣, 烏乎可.”

平虜護軍 西平太守로 奉高侯에 봉해졌고 東羌校尉에 추가 除授된 마룡이 지었다³⁹⁾고 하여 이 글이 서량 정벌 이후에 쓰인 것이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하여 마룡이 갖고 있던 군사 사상을 표현하였다.

군대를 통솔하는 것은 신의로 해야 하지만 뛰어난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발한 술책을 써야 한다. 신의란 변경시키면 안 되는 것이나 전쟁은 일정한 규칙이 없다. 주도권은 장악할 수 있는 한 장악해야 하며 기묘한 작전 계획은 전개할 수 있는 한 전개시켜야 한다. 천변만화를 통하여 적이 나의 작전계획을 알 수 없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⁴⁰⁾

위와 같은 취지는 고대 중국의 兵家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사상이라 마룡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견해가 아니다. 그러나 관건은 그것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마룡 역시 자기 부대를 관리하고 군사들을 지휘통솔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였다. 신뢰가 없다면 군대의 기강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한 일은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적과 싸울 때는 이 신뢰를 버려야 한다. 천변만화의 갖은 술책과 권모를 동원하여 적을 기만해 아군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신뢰와 기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만 마룡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리 써야 한다고 기술했다.

진법에 대한 마룡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四陣의 원리를 설명하면, 움직이면 기묘한 戰法을 발휘하고 멈추면 陣을 전개한다. 陣이란 정렬하는 것이다. 적과 싸우면서 군사들의 전투력을 소진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교대로 전투하게 하여 군사들의 전투력을 고르게 안배해야 한다.⁴¹⁾

39) 風后, 『握奇經』(『四庫』, 726冊, p.5의 上右), “八陣總述. 晉 平虜護軍 西平太守 封奉高侯 加授東羌校尉 馬隆 述.”

40) 위의 책, p.5의 上右-上左, “治兵以信, 求聖以奇, 信不可易, 戰無常規, 可握則握, 可施則施, 千變萬化, 敵莫能知.”

41) 위의 책, p.5의 上左, “四陳讚. 動則爲奇, 靜則爲陳, 陳者陳列, 戰則不盡, 分苦均勞, 佚輪輒定.”

위 글은 진법의 목적과 운용을 약술한 것이다. 진법을 전개하는 첫 번째 목적은 부대 간에 교대전투를 시켜 어느 한 부대나 특정한 군사들만 지치게 하지 않는 데 있었다. 즉, 군사들의 피로도를 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숙영지를 운영하는 데 있었다. 숙영할 때는 견고한 방어준비가 필요했기에 포진하였다. 세 번째 목적은 작전 중 임기응변에 따른 변화이다. 일단 전투를 시작하면 천면만화하여 적이 예측할 수 없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내려온 군사사상의 하나였다.

마룡은 팔진 중 正陣의 명칭과 그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天陣은 16개 부대로 편성되며 내부는 方하고 외부는 圓한데 四面에 陣과 天衝으로 둘러 있어 하늘과 같이 둥글고 모든 진들의 주체라 가장 먼저 편성된다.⁴²⁾

②地陣은 12개 부대로 편성하며 正방한 형태를 갖고 있다. 雲陣이 地陣의 四角에 배치되고 衝과 軸이 서로 당면하고 있어 실체를 헤아리기 어렵기에 운용의 묘리는 끝이 없으나 단독작전은 불가능 하여 天陣과 합동작전을 해야 한다.⁴³⁾

③風陣은 일정한 형태가 없기에 天陣에 부속되나 蛇陣으로 변화하며 신묘한 의미를 갖는다. 바람이 북을 올리면 만물들이 놀라고 뱀이 휘감듯 포위하면 삼군이 두려워한다.⁴⁴⁾

④雲陣은 地陣에 부속되기에 일정한 형태가 없다. 그러나 翔鳥陣으로 변화하면 형태가 구성되어 돌격을 단행한다. 구름에 가린 것 같이 식별할 수 없으나 징이나 북소리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이 많은 변화를 갖는다.⁴⁵⁾

42) 위의 책, p.5의 上左, “天陳讚. 天陳十六, 內方外圓, 四面風衝, 其形象天, 爲陳之主, 爲兵之先.”

43) 위의 책, p.5의 上左-下右, “地陳讚. 地陳十二, 其形正方, 雲生四角, 衝軸相當, 其體莫測, 動用無疆, 獨立不可, 配之於陽.”

44) 위의 책, p.5의 下右, “風陳讚. 風無正形, 附之於天, 變而爲蛇, 其意漸玄, 風能鼓動, 萬物驚焉, 蛇能圍繞, 三軍懼焉.”

45) 위의 책, p.5의 下右, “雲陳讚. 雲附於地, 則知無形, 變爲翔鳥, 其狀乃成, 鳥能突擊, 雲能晦冥, 千變萬化, 金革之聲.”

마룡은 위의 ①②③④항 외에도 飛龍陣·鳥翔陣·蛇蟠陣·虎翼陣이란 4개의 奇陣에 대해서 설명하고⁴⁶⁾ 奇兵·合과 離·遊軍·鞞鼓·磨角·兵體 등에 대하여 약술하였으나⁴⁷⁾ 八陣이나 天·地·風·雲·龍·虎·鳥·蛇의 변진에 대한 陣圖는 작성해 놓은 것이 없다. 그래서 唐宋시기부터 진법을 논할 때마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 글을 보면 팔진의 편성이나 그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을 쓴 마룡은 唐宋이나 명나라 때 팔진을 연구했던 文士들과 달리 실전을 통하여 팔진의 위력을 입증해 보이면서 작전을 성공시킨 인물이란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⁴⁸⁾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마룡은 병법이나 진법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그의 군사사상 역시 옛 명장들의 지휘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IV. 마룡의 西征과 팔진도

1. 병력 선발과 출전 준비

泰始 5년(269), 서진에서는 王濬과 杜預를 중심으로 동오를 정벌해 천하를 통일하자는 여론이 부상하였다.⁴⁹⁾ 이에 각 州郡에 조칙을 내려

46) 위의 책, pp.5의 下左-6의 上右, “飛龍. 天地後衝, 龍變其中, 有手有足, 有背有胸, 潛則不測, 動則無窮, 陳形亦然, 象名其龍. 翔鳥. 鷲鳥擊搏, 必先翔翮, 勢凌霄漢, 飛禽伏藏, 審而下之, 下必有傷, 一夫突擊, 三軍莫當. 蛇蟠. 風爲蛇蟠, 蛇吞天真, 勢欲圍繞, 性能屈伸, 四季之中, 與自太公范蠡以來, 風雲無正形, 所以附天地下, 虎爲鄰後變, 常山首尾相因. 虎翼. 天地前衝, 變爲虎翼, 伏虎將搏, 盛其威力, 淮陰用之, 變化無極, 垓下之會, 魯公莫測.”

47) 위의 책, p.6의 上右-下左, “奇兵讚. 古之奇兵, 兵在陳內, 今人奇兵, 兵在陳外, 兵體無形, 形露必潰, 審而爲之, 百戰不味…夫樂殺人者, 不得志於天下, 聖人之言, 以戒來者.”

48) 『四庫』를 열람해 보면 많은 문헌에서 마룡이 八陣圖로 서량을 평정한 일을 다루고 있다.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인재나 용맹한 인물을 천거해 조정으로 올려 보내라는 조서를 하달하였다. 이 조서를 받은 연주에서는 마룡을 추천하였고 조정에 올라간 마룡은 司馬督에 임명되었다.⁵⁰⁾

咸寧 4년(278), 양주자사 楊欣이 羌戎들과 화목하지 못하자 마룡은 황제에게 말하기를 “양혼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런 뒤 얼마 안 되어 과연 반란이 일어나 咸寧 5년(279) 1월에 선비의 우두머리 禿髮樹機能의 일파인 若羅拔能이 武威에서 양혼의 군대를 기습하여 격파시키고 양혼까지 사로잡아 죽였다. 이로부터 양주는 반란군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⁵¹⁾ 수기능은 선비족 禿髮壽闐의 아들이다. 수전의 어머니가 잠결에 아이를 낳았기에 이것을 의미하는 선비의 말인 독발이 성씨가 되었다.⁵²⁾

서량에서 발생한 반란은 천하통일을 꿈꾸는 서진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河西지역과 서진으로 통하는 도로까지 차단되었다. 동오를 정벌하려던 서진은 강용의 위협을 방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고민하던 무제는 어느 날 조회에서 이 일을 개탄하며 “누가 나를 위해 반역한 오랑캐들을 평정하고 양주를 개통시켜 놓을 수 있겠는가?”하고 말했으나 신하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룡이 나와 “폐하! 신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신다면 신이 그들을 평정하

49) 房玄齡, 『晉書』 卷三十四(『四庫』 255冊), “列傳 第四…杜預…乃啓請, 伐吳之期, 帝報待明年, 方欲大舉. 預表陳至計.”

50) 위의 책, 卷五十七, p.943의 上右, “列傳 第二十七…秦始中, 將興伐吳之役, 下詔曰, 吳會未平, 宜得猛士, 以濟武功, 雖舊有薦舉之法, 未足以盡殊才其善告, 州郡有壯勇秀異, 才力傑出者, 皆以名聞將簡, 其尤異擢而用之, 苟有其人, 勿限所取. 兖州舉隆才. 堪良將, 稍遷司馬督.”

51) 위의 책, p.943의 上右, “初, 涼州刺史楊欣, 失羌戎之和, 隆陳其必敗, 俄而欣爲虜所沒, 河西斷絕.”

52) 魏收, 『魏書』 卷九十九(『電庫』 所收), “列傳 第八十七. 鮮卑, 禿髮烏孤, 八世祖匹孤, 自塞北遷於河西. 其地, 東至麥田牽屯, 西至濕羅, 南至澆河, 北接大漠, 匹孤死, 子壽闐統任, 初母孕壽闐, 因寢產於被中, 乃名禿髮, 其俗爲被覆之義, 五世祖樹機能.”

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무제는 “적을 섬멸할 수만 있다면 어찌 임명하지 않겠는가! 경에게 어떠한 방략이 있는지 듣고 싶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룡은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하지 않고 “폐하! 만약 신을 임명하시려면 신의 청을 들어주시고, 이후로는 스스로 결정해 작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무제는 그 청이 “무엇인지 말 해 보라”고 했고⁵³⁾ 마룡은 그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에게 ㉔용사 3,000명을 선발할 수 있게 해 주시되, ㉕누구를 선발하든 따지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폐하의 위엄을 받들어 정벌한다면 보잘 것 없는 오랑캐들을 어찌 섬멸하지 못하겠습니까!⁵⁴⁾

이 당시 서진에는 많은 대군이 있었는데 마룡은 왜 그들 중 한 개 부대를 차출해 가지 않고 위 글 ㉔와 같이 모병하겠다고 했을까? 거기에는 조정의 공식석상에서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서진에는 수 십만 대군이 있었지만 마룡이 손발 같이 지휘할 수 있는 부대는 없었다. 일반 병사들을 데리고는 험준한 지역에서 강한 무장력으로 단결된 樹機能의 군대를 격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룡은 자기가 손발 같이 지휘할 수 있는 정예부대를 양성해 데리고 가고자 3,000명의 용사를 모병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로보아 마룡은 ‘군대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의 규모에 맞게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을 정도면 된다’⁵⁵⁾는 용병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㉕는 출신이나 현재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용맹하다면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들으면 평범한 말 같으나 대단한

53) 房玄齡, 『晉書』 卷五十七 (『四庫』 255冊, p.943의 上右-上左), “帝, 每有西顧之憂, 臨朝而歎曰, 誰能爲我討此虜, 通涼州者乎. 朝臣莫對. 隆進曰, 陛下若能任臣, 臣能平之. 帝曰必能滅賊, 何爲不任, 顧卿方畧何如耳. 隆曰, 陛下若能任臣, 當聽臣自任. 帝曰, 云何.”

54) 위의 책, p.943의 上左, “臣, ㉔請募勇士三千人, ㉕無問所從來, 率之鼓行而西, 稟陛下威德, 醜虜, 何足滅哉.”

55) 唐順之, 『武編』 前集 卷三 (『四庫』 727冊, p.318의 下左), “兵不貴多.”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절대 권력자인 황제가 승인해주어 그 권한을 위임 받으면 농부나 군인·노예는 물론 감옥에 있는 도둑·폭력배·사형수들이라도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다.⁵⁶⁾

이 말을 들은 무제는 마룡의 건의를 운허하고 그를 武威太守에 임명하였다. 그러자 公卿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조정에는 이미 ③양성된 6군의 많은 군사들이 있고 ④州郡에 있는 병사들도 많습니다. ⑤토벌을 하려면 이들을 데리고 출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⑥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상금을 걸고 모병하는 것은 국가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됩니다. ⑦마룡은 보잘 것 없는 일개 무관일 뿐이라 함부로 떠드는 것이니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옳을 일이 아닌 줄로 아뢰웁니다.⁵⁷⁾

위 글 ③의 六軍은 당시 서진이 보유하고 있던 군대를 총칭한 것이다. 六軍이란 본래 천자가 통솔하는 군대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전의되어 국가의 모든 군대를 총칭하는 용어가 되었다.⁵⁸⁾ ④는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을 말하는 것이다. 서진에는 공경들이 말한 대로 수많은 대군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병은 백성들에게 또 다른 고충을 주게 된다. ⑤ 역시 당연한 주장이다. 전쟁을 목적으로 양성한 부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양성한 군대를 마다하고 다른 군인들을 모집하겠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⑥도 그렇다. 수많은 병사들이 대부분 무보수로 징집되어 복역하고 있는데 서량정벌군은 현상금을 걸고 모병하겠다고 하니 다른 군사들이 반발할 일이다. 그래서 ⑦와 같이 무지한 무관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무제의 입장에서 보면 조정중신들이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

56) 司馬光, 『資治通鑑』 卷八十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英祖 연간(1725-75추정), 刊寫者 未詳), p.42. “應募者, 或出於農畝, 或出於營伍, 或出於逋逃, 或出於奴隸, 皆不問其所從來也.”

57) 『晉書』 卷57 (『四庫』 255冊, p.943의 上右), “列傳 第27…馬隆…公卿 僉曰, ③六軍既衆, ④州郡兵多, ⑤但當用之, ⑥不宜 橫說賞募, 以亂常典, ⑦隆 小將妄說, 不可從也.”

58) 檀國大學校, 『漢韓大辭典』 2권 (2000), p.206.

하지 못하면서 명분이나 원칙만을 따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무제는 여러 公卿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 있어 보이는 마룡의 제안을 들어 주었다.

무제의 재가를 받은 마룡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여 용사들을 선발하였다.

첫째, 허리 힘은 36鈞(약 238kg)짜리 쇠뇌를 충분히 다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팔 힘은 4鈞(약 26kg)짜리 활을 당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체력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내 걸고 일정을 정하여 아침부터 선발을 시작하자 많은 인원들이 응시하여 점심때까지 3,500명을 가려 낼 수 있었다. 이것은 그때 내 건 현상금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룡은 이들이면 충분하다며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았다.⁵⁹⁾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무기고를 찾아가던 마룡은 武庫令⁶⁰⁾과 싸우게 되었다. 마룡과 싸운 자가 누군지 이름을 알 수 없으나 평소 마룡과 원한 관계에 있었기에 낯고 부식된 무기를 지급하였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마룡은 그와 심하게 싸웠다. 당시에 도 관리들 간의 싸움은 징계해야 할 사항이었던 것 같다. 마룡은 어사중승의 탄핵을 받았으나 무고령이 탄핵 받았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어렵지 않게 풀린다. 오늘날 재고관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급(낡은 것)을 먼저 지급하고 A급(신품)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규정은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탄핵을 받은 마룡은 무제 앞에 나가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신이 목숨을 내 놓고 전장에 가게 되었는데 무기고에서 지급해 주는 무기들은 魏나라 때 쓰던 것이라 낯고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폐하

59) 房玄齡, 『晉書』 卷五十七 (『四庫』 255冊, p.943의 上左), “列傳 第二十七…隆, 募限腰引努三十六鈞, 弓四鈞. 立標簡試, 自旦至中, 得三千五百人, 隆曰, 足矣.”

60) 武庫令이란 쯤나라 때 衛尉에 속한 관원의 직명으로 무기고를 관리하였다. (『資治通鑑』 卷八十, “晉志, 武庫令, 屬衛尉.”)

게서는 신을 보내 적을 섬멸하실 뜻이 없으십니까?” 이 말을 들은 무제는 마룡이 원하는 병장기들은 마음대로 골라가게 하면서 3년 간 사용할 수 있는 군수물자와 군자금을 조달해 주었다.⁶¹⁾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마룡의 서량원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

2. 偏箱車의 운용

준비를 마친 마룡은 병사들을 훈련시킨 뒤 서량으로 출정하였다.

마룡은 서쪽으로 행군하여 溫水⁶²⁾를 건넜다. 이때 오랑캐 禿髮樹機能 등은 수만 명의 部衆을 지휘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들은 험준한 지역을 점거하여 마룡 군의 전진을 막고 복병을 매복시키기도 하였으며,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마룡은 ④八陣圖의 戰法에 의거하여 ⑥偏箱車를 만들었다. 넓은 개활지에서는 ③鹿角車營法으로 전투하였고, ④길이 좁으면 전차 위에 나무로 만든 지붕을 씌워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③싸우면서 전진하였다. 晉軍이 화살을 쏠 때 마다 적병이 거꾸러졌다. 마룡은 기발할 계책으로 적이 의도하지 못한 곳을 기습하였다. 어떤 경우 ①좁은 길 좌우에 적들이 磁石을 배치하여 철제 갑옷이나 투구를 입은 군사들은 전진할 수 없었으나 마룡의 용사들은 모두 ⑧犀甲을 입고 있었기에 磁力가 통하지 않았다. 적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神兵이라 하였다. 이렇게 천리 길을 싸우며 전진하여 수 천명의 적병을 살상하였다.⁶³⁾

위 기록을 보면 마룡은 그 해(279) 11월(양력으로는 1월)에 서량으로 출정하여 낙양 서쪽에 있는 운수를 건너갔다. 이때 禿髮樹機能 등은

61) 房玄齡, 『晉書』 卷五十七 (『四庫』 255冊, p.943의 上左-下右), “因請, 自至武庫, 選杖. 武庫令, 與隆忿爭. 御史中丞, 奏劾隆. 隆曰, 臣當亡命, 戰場以報, 所受武庫令, 乃以魏時朽杖, 見給不可復用, 非陛下使臣滅賊意也. 帝從之. 又給, 其三年軍資.”

62) 溫水는 낙양의 서쪽과 武威 동쪽 사이에 있는 洛水의 다른 이름이다. (檀國大學校, 『漢韓大辭典』 8권, p.746).

63) 房玄齡, 『晉書』 卷57 (『四庫』, 255冊, pp.943의 下右-下左). “列傳 第二十七…隆, 於是西渡溫水, 虜樹機能等, 以衆萬計, 或乘險, 以遏隆前, 或設伏, 以截隆後, 隆, ①依八陣圖, ②作偏箱車, 地廣則, ③鹿角車營, ④路狹則, 爲木屋, 施於車上, ⑤且戰且前, 弓矢所及, 應弦而倒, 奇謀間發, 出敵不意, ⑥或夾道, 累磁石賊負, 鐵鎧行不得前, 隆卒, 悉被⑧犀甲, 無所留礙, 賊咸以爲神, 轉戰千里, 殺傷以千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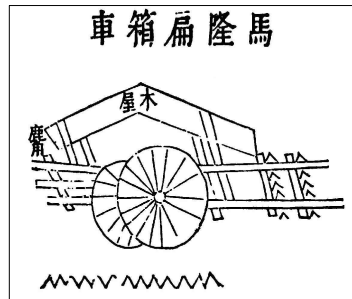
수만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마룡의 공격에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들은 험준한 지역을 점거하여 마룡 군의 전진을 막기도 하고 북병을 매복시켜 기습하기도 하였으며,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마룡은 이들을 격파하기 위해 ㉠에 따라 ㉡를 만들었다고 한다. 제갈량의 八陣圖 진법에 偏箱車를 운용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 글로 볼 때 편상거를 운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당나라 李靖을 비롯하여 팔진도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팔진도에 편상거가 운용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⁶⁴⁾

중국 사서들은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으나 특정한 陣法으로 작전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진법을 처음 만들었다는 黃帝의 涿鹿 전쟁이나 팔진도로 명성을 날린 제갈량의 전쟁 기록에도 무슨 진법으로 싸웠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진법이 군사적 기밀사항이라 사관들이 인지할 수 없었던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진서』에서 마룡이 팔진도에 따라 싸웠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팔진도의 위력이 西晉은 물론 唐代에까지도 명성을 떨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하여 서기 234년에 제갈량이 죽은 뒤 45년이 지났는데도 서진에서는 제갈량이나 그의 팔진도 진법을 연구하고 활용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도2> 馬隆 偏箱車圖

『진서』에는 ㉡의 편상거에 대한 제원이나 그림이 없지만 사람이 손으로 밀고 다니는 수레에 지붕을 씌우고 그 안에 쇠뇌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2>는 명나라 趙本學이 제시한 편상거의 측면으로 그는 마룡의 편상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출처: 『中國兵書集成』 17冊, p.354.

64) 趙本學, 『屬武經總要』 (『兵集』, 17冊, pp.632-633), “馬隆, 推演孔明八陣, 爲偏箱角圓陣.” (李靖의 글은 각주81) 참조.

晉나라 元康(291-299) 년간, 羌族 木機能이 양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힘
 준한 지형에 의지해 대항하니 관병들은 토벌할 수 없었다. 마룻은…3,200
 명의 용사를 선발하였다. 전차 128乘을 운용하여 25명씩 승차시키고 2乘
 씩 1陣으로 묶어 서로 돕도록 하면서 300명을 遊變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공명의 陣圖에 따라 4層으로 만들어 1층에 56승, 2층에 40승, 3층에 24승,
 4층에 8승을 배치했다.…길이 좁으면 木屋를 설치하여 화살과 돌을 막았
 다. 木屋拒馬는 높으면 쓰기 어렵기에 상자의 틀을 반으로 줄여 기울게
 만들었다. 그래서 偏箱車라고 한다.⁶⁵⁾

조본학의 글에는 몇 가지 오류를 찾아 볼 수 있다. 太始(265-274)를
 元康(291-299)이라 하며 시대구분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고 樹機能을
 木機能이라고 썼다. 『진서』에는 마룻이 선발한 군사가 3,500명이라 했
 는데 조본학은 3,200명으로 축소했다. 마룻이 128乘의 전차를 운용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1승의 전차에 25명씩 승차시켰다는 것도 이해
 가 되지 않는다.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했던 고대에도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1량에 3명의 갑사가 승차하여 싸웠다. 그래서 25명이 모두
 승차하려면 대형전차라야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전차로는 협소한 계곡
 을 통과할 수 없다. 고대 전차편제의 1승에는 3명의 갑사 외에 보졸이
 72명이고 치중은 25명이었기에 조본학이 제시한 25명도 후속하는 인원
 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면 적의 矢石을 피하기 위해 편상거를 운용
 했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이러한 오류가 있음에도 조본학이 제시한
 그림이나 설명은 일말의 참고가 될 수 있기에 제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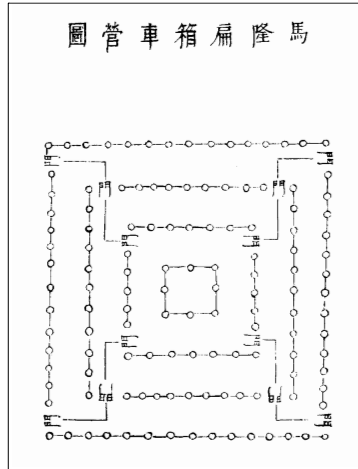
㉔에 대한 것은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명나라 張燁이
 <도3>과 같은 營圖를 그려 놓았으나 조본학은 이것을 보고 “장엽은
 출처가 알 수 없는 진도를 그리면서 2개의 箱을 멋대로 그리는 오류를
 범하였고, 扁을 偏으로 읽는 것은 속된 착오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⁶⁶⁾
 고 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65) 趙本學·俞大猷, 『屬武經總要』(『兵集』 17冊, 1994, pp.351-352), “扁箱車陣-
 晉 元康間, 戎虜木機能, 反涼州…故曰, 扁箱車也.”

66) 茅元儀, 『武備志』(『兵集』 29冊, 1994, pp.2238-2239), “張燁…扁讀爲偏者, 世
 俗之誤也.”

이러한 사료들을 토대로 추정해 본 편상거는 오늘날의 전차와 유사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㉔와 같이 좁은 협곡을 지날 때 고지 좌우에서 매복한 적병이 활을 쏘거나 목석을 굴러도 지붕으로 보호되었기에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룡이 지휘하는 旂軍은 모두 선발된 정예부대였기에 적병을 향해 활을 쏠 때 마다 명중시켰다고 한다. 통상 매복에 걸리면 전멸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마룡의 편상거는 협곡에서 매복한 적병들로부터 공격을

<도3> 馬隆 偏箱車營圖



출처 : 『中國兵書集成』 29冊, p.2330.

받아도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편상거 안에서 강한 쇠뇌와 활로 고지에 있는 적을 쏘았는데 궁시의 유효사거리 안에 있으면 활을 쏠 때마다 적병이 쓰러졌다. 마룡은 이따금씩 기발한 전법을 발휘해 싸우면서 진진했고, 적들은 마룡의 군대를 신병이라 불렀다.⁶⁷⁾ 이와 같은 사례는 동서고금의 전사를 통해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㉔는 관심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마룡의 군대는 ‘싸우면서 진진하였다(且戰且前)’고 한다. 이것을 현대식 군사용어로 표현해 보면 ‘교대구간전진’이나 ‘축차구간전진’에 해당된다. ‘싸우면서 진진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고대 중국의 진법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투하는 기술이 아니고 ‘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67) 劉於義, 『甘肅通志』 卷三十二 (『電庫』 所收), “樹機能等, 以衆萬計, 乘險設伏, 隆依八陣圖, 作偏箱車, 地廣則, 爲鹿角列營, 地狹則, 爲木屋施于車上. 且戰且行, 弓矢所及, 應絃而倒, 奇謀間發, 出敵不意, 賊以爲神, 轉戰千里.”

- ① 안개 속에서 蚩尤를 공격한 風后의 握奇陣
- ② 周桓王을 공격한 高渠彌의 魚麗陣
- ③ 험준한 산악지대를 공격한 춘추시기 췌나라 荀吳의 崇卒陣
- ④ 흉노를 공격한 竇憲의 八陣
- ⑤ 魏軍을 공격한 제갈량의 八陣圖
- ⑥ 돌궐을 공격한 李靖의 六花陣
- ⑦ 왜구를 공격한 척계광의 원앙진

등은 모두 공격작전에 사용한 것이지 방어용으로 쓰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陣이란 울타리를 쳐 놓은 듯한 형태의 방어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文弱에 흐른 宋나라 이후부터 시작된 오류로 보인다.

㉑는 적병의 수비책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협곡 좌우에 礮石陣을 설치해 놓고 강력한 자력으로 철제 병장기나 갑옷과 투구 등을 달라붙게 하였다. 그러나 마룡의 군사들은 모두 ㉒와 같은 犀甲(물소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자석진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다른 관군들은 자석진에서 고생했는데 마룡의 군대는 반응이 없자 반란군들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며 神兵이라고 하였다. 철갑은 서갑보다 무겁다. 그러나 보호력은 더 좋다. 건장하고 힘센 병사들을 선발한 마룡이 보호력이 떨어지는 서갑을 준비한 것은 반란군들의 전술을 예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룡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난관을 개척하며 진군하였다. 그들은 천리 길을 싸우면서 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천명의 적병을 살상하였다.

한편 반란세력들에 의해 마룡의 배후가 차단됨에 따라 양주로부터 전해지던 마룡의 소식이 끊어지자 조정에서는 그가 패전하여 전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마룡이 보낸 사자가 밤에 도착하여 독발수기능을 크게 격파했다고 보고하자 무제는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는 다음날 조회에서 군신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만약 여러 공경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의 秦과 涼의 땅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렸다. “마룡은 소수의 병사들만을 데리고 출정했어도 용전분투하여 험난한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적을 평정하였다. 그래서 마룡을 假節 宣武將軍에 봉하면서 赤幢과 曲盖와 鼓吹(68)를 추가로 하사 한다”69)라고 하였다.

마룡이 武威에 도착하자 鮮卑의 大人 猝跋韓과 且萬能 등은 10,000여 부락을 데리고 투항하였다. 이 싸움에서 주살하거나 투항한 자도 10,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후 오래지 않아 다시 善戎 沒骨能 등을 인솔하여 독발수기능과 결전해 승리하자 독발수기능은 패전한 뒤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이로써 양주를 완전히 평정하게 되었다.70) 명나라 장엄은 이러한 마룡의 진법을 <도4>와 같이 표현하였다.

이때 서량의 인원이나 군사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진서』에서는 수 만명이라 했으나 10만 명으로 기록한 책71)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대군을 격파한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전공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마룡과 그의 부대원들에게 공과에 따라 포상할 것을 논의했으나 포상을 담당하는[有司] 관원이 아뢰기를 “마룡과 그 병사들은 먼저 현상금을 걸고 작위를 주어 모집했기 때문에 다시 포상하거나 승

<도4> 張輝의 馬隆偏箱車圖



출처 : 『中國兵書集成』 29冊,

68) 赤幢이란 군사지휘나 儀仗·行列·舞蹈에 쓰는 깃발이고, 曲盖란 굽은 日傘으로 장군이나 刺史의 의장이며, 鼓吹란 군악을 말한다. (檀國大學校, 『漢韓大辭典』 4권, p.1088).

69) 房玄齡, 『晉書』 卷五十七 (『四庫』 255冊, p.943의 下左), “列傳 第二十七…自隆之西, 音問斷絕, 朝廷憂之, 或謂已沒. 後隆使夜到, 帝撫掌歡笑, 詰朝召羣臣謂曰, 若從諸卿言, 是無秦涼也. 乃詔曰, 隆以偏師寡衆, 奮不顧難冒險能濟, 其假節宣威將軍, 加赤幢曲盖鼓吹.”

70) 위의 책, p.943의 下左, “隆到武威, 虜大人猝跋韓·且萬能等, 率萬餘落歸降, 前後誅殺及降附者, 以萬計. 又率善戎沒骨能等, 與樹機能大戰斬之. 涼州遂平.”

71) 王應龍, 『周禮翼傳』 卷二 (『電庫』 所收), “馬隆, 勝樹機能十萬之衆.”

진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⁷²⁾라고 하였다. 그러자 衛將軍 楊
眺가 이 말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출전에 앞서 정예한 장병들을 모집할 때 조그마한 작위와 현상금을 걸
었던 것은 이들을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 유인한 것입니다. 지금 마룡과
그 장병들은 전군에서 유독 서쪽 지역을 평정하여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앞 서 준 것만을 갖고 따진다면 이후에는 공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을 세우려 하
겠습니까? 사리가 그러하니 공을 세웠다면 모두 포상하여 국가의 신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⁷³⁾

관원은 문관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일만 따졌으나 무장인 양요는 군
사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하는 전장의 실상을 알고 있었기에 응분의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도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달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무제는 양효의 진언에 따라 각
자의 공로에 따라 작위와 봉록을 올려 주었다. 『진서』 武帝紀에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晉武帝 咸寧 5년(279) 1월에 오랑개의 우두머리 수기능이 양주를 공격
해 함락시켰다. 乙丑 일에 討虜護軍 武威太守 마룡에게 그들을 격퇴시키
라고 하였다…11월에 동오를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일으켰다…12월, 마룡
이 모반한 수기능을 공격해 크게 격파한 뒤 그의 목을 베어 양주를 평정
시켰다. 肅愼이 조공하러 와서 싸리나무로 만든 화살과 석노를 헌상했
다.⁷⁴⁾

마룡의 傳에는 月과 日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제기에서는 年月
日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룡이 西征한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

72) 房玄齡, 『晉書』 卷五十七 (『四庫』 255冊, p.943의 下左), “朝議, 將加隆將士勳賞. 有司奏, 隆將士皆先加顯爵, 不應更授.”

73) 위의 책, pp.943의 下左-944의 上右, “前, 精募將士, 少加爵命者, 此適所, 以爲誘引. 今隆, 全軍, 獨剋西土獲安, 不得, 便以前授, 塞此後功, 宜, 皆聽許, 以明要信.”

74) 房玄齡, 『晉書』 卷五十七 (『電庫』 所收), “武帝…咸寧…五年春正月, 虜帥樹機能, 攻陷涼州, 乙丑, 使討虜護軍武威太守馬隆, 擊之…十一月 大舉伐吳…十二月, 馬隆, 擊叛虜樹機能, 大破斬之. 涼州平. 肅愼來, 獻楛矢石弩.”

에 따르면 서기 279년 1월에 수기능이 양주를 함락시키자 무제는 그달 乙丑 일에 마룡을 무위태수로 임명하여 출정토록 했다. 마룡의 토벌로 서량의 반란이 진압될 기미를 보이자 그해 11월에 동오를 공격하였다. 남정을 개시한 쯤軍은 불과 6개월 만인 다음해(280) 4월에 동오를 멸망시켜 천하통일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마룡은 진군이 동오를 공격한 다음달 12월에 수기능을 완전 평정하여 출정 11개월 만에 성공하였다.⁷⁵⁾ 이때 만주지역에 있던 肅愼이 조공하러 왔다는 기록도 함께 수록되어 변경 민족에 대한 서진의 관심도를 나타내 주었다.

太康 1년(280), 진나라 조정은 다시 마룡을 平虜護軍 西平太守로 승진시켜 주고 일부 부대를 증원해 주면서 이들을 데리고 전란으로 황폐해 진 西平郡(지금의 西寧)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을 평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마룡은 현지에 도착하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며 중건을 도모하였다. 그 당시 외부 민족인 成奚는 변경을 자주 침략해 왔다. 마룡이 이들을 토벌하고자 했으나 성해는 험준한 곳에 웅거하고 있어서 쉽게 공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마룡은 병사들에게 농기구를 주어 밭을 갈고 땅을 파며 농사꾼들과 같이 경작하게 하였다. 성해는 마룡이 정벌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점차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고 그 무리들 또한 해이해졌다. 마룡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적이 방비하지 않는 틈을 노려 기습으로 성해의 무리들을 격파하였다. 이로써 서평군은 완전하게 평정되었고, 마룡이 있는 동안 성해는 두 번 다시 소란을 피우지 못했다.⁷⁶⁾

마룡의 서정은 후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한 예로 송나라 왕응린은 『玉海』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었다.

75) 위의 책, “武帝…咸寧…十一月, 大舉伐吳…凡二十餘萬…三月壬申王濬, 以舟師至于建鄴之石頭, 孫皓大懼, 面縛輿櫬, 降于軍門.”

76) 房玄齡, 『晉書』(『四庫』255冊, p.944의 上右-上左), “太康初, 朝廷以西平荒毀, 宜時興復, 以隆爲平虜護軍 西平太守, 將所領精兵. 又給牙門一軍, 屯據西平. 時南虜成奚, 每爲邊患, 隆至帥軍討之. 虜據險距守, 隆令軍士, 皆負農器, 將若田者. 虜以隆無征討意, 御衆稍怠, 隆因其無備, 進兵擊破之. 畢隆之政, 不敢爲寇.”

마룡전에 의하면 오랑캐들이 양주를 함락시켜 河西와의 연락이 단절되자 마룡이 이를 토벌하겠다고 자청하며 용사 3,000명을 선발해 주면 북을 치며 서쪽으로 진군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룡을 무위태수로 임명하였다. 마룡이 용사들을 모집할 때 허리 힘은 26근짜리 쇠뇌를 다릴 수 있어야 하고 활은 4근짜리를 당길 수 있는 힘 센 자들을 선발하였다. 標簡을 세워 놓고 모병하여 3,500명을 선발하자 마룡은 직접 무기고에 가서 그가 원하는 무기들을 선별하여 가져 갔다. 준비를 마친 마룡은 서쪽으로 온수를 건너갔다. 수기능 등은 수 만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험준한 산악지역을 이용해 북병을 매복시켜 마룡을 막았다. 마룡은 팔진도에 따라 만든 편상거를 운용하였다. 지역이 광활하면 鹿角車營을 전개하고 좁은 길에서는 수레 위에 木屋를 설치하여 싸우면서 전진하였고, 활과 화살의 유효사거리가 되면 시위 소리와 함께 적이 쓰러졌다. 어떤 경우에는 적들이 좁은 길의 좌우에 자석을 설치하여 철갑을 입은 군사들이 전진할 수 없게 하였다.⁷⁷⁾

위 글은 왕응린이 고대진법의 원리를 논하며 진법에서 전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룡의 사례를 인용한 것이지만 고문헌을 열람해보면 이와 유사한 문장들은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3. 偏箱車와 八陣圖

제갈량의 팔진도에 편상거를 운용했다는 기록은 찾아 보기 어렵지만 후세 사람들은 마룡의 사적을 통하여 제갈량의 팔진도에 편상거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한 예를 당태종과 이정의 문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태종이 말하기를 “쑤나라 마룡이 양주를 토벌할 때도 역시 ㉠八陣圖에 의거하여 편상거를 만들어 지역이 넓으면 鹿角車營을 운용하였고, 길

77) 王應麟, 『玉海』 卷一百四十六 (『四庫』 946冊), “兵制…晉 偏箱車. 馬隆傳, 虜陷涼州, 河西斷絕. 隆 請募勇士三千人, 鼓行而西, 以隆 爲武威太守, 隆 募限 腰引弩二十六鈞, 弓四鈞, 立標簡, 試得三千五百人, 請自至武庫選仗, 於是西渡溫水, 樹機能等衆數萬, 乘險設伏, 以拒之. 隆 依八陣圖, 作偏箱車, 地廣則鹿角車營, 路狹則爲木屋施於車上, 且戰且前, 弓矢所及, 應弦而倒, 或夾道, 累磁石賊負, 鐵鎧行不得前.”

이 좁으면 전차 위에 木屋를 설치해 싸우면서 전진하였다고 하니, 正兵은 옛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하였다. 李靖이 말하기를 “신이 돌궐을 토벌하며 서쪽으로 수 천리를 행군할 때도 정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①偏箱鹿角은 用兵의 大要이니 하나는 체력을 조절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방을 방어하는 것이며, 하나는 부대를 결속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는 조화롭게 운용해야 합니다. ②마룡은 옛 전법을 심오하게 체득하였습니다.”⁷⁸⁾

당태종이나 이정은 5000년 중국역사를 통하여 뛰어난 군사전문가로 꼽히고 있다.⁷⁹⁾ 그러한 그들의 문답인 ①·②·③를 볼 때 두 사람 모두 제갈량의 팔진도에 편상거가 운용되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八陣이란 용어는 제갈량 이전부터 있었지만 八陣圖란 제갈량의 戰法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제갈량이 木牛와 流馬라는 치중 운반용 수레를 발명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 진 일이다. 그런 그가 싸움터에서 전차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티엔 자오린도 “제갈량의 팔진은 주로 보병으로 구성된 蜀의 10만 군대로는 대다수가 騎兵으로 편성된 魏의 30만 상비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弓弩部隊를 대량으로 양성했다. 이 궁노부대는 제갈량이 창안한 약 6미터 길이의 木柄輪과 7.5미터 길이의 竹柄輪을 장비하여 拒馬와 鹿角 같은 장애물을 걸들여 이용하면서 적의 기병이 600미터 정도 접근해 왔을 때부터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遊兵 24개 부대를 별도로 배치하여 궁노의 공격에 붕괴된 적군을 추살하였다”⁸⁰⁾고 하며 西晉의 馬隆이 涼州를 평정할 때 3,500명 전원을 궁노병으로 선발하여 偏箱車 속에서 화살로 적을 射殺했다는 기록을 인용하였다.

78) 李靖, 『李衛公問對』(『四庫』726冊, p.144의 下右-下左). “太宗曰, 晉馬隆, 討涼州, 亦是②依八陣圖, 作偏箱車, 地廣則用鹿角車營, 路狹則爲木屋施於車上, 且戰且前, 信乎正兵, 古人所重也. 靖曰, 臣討突厥西行數千里, 若非正兵, 安能致遠, ①偏箱鹿角, 兵之大要, 一則治力, 一則前拒, 一則束部伍, 三者迭相爲用, ③斯馬隆所得, 古法深也.”

79) 中國軍事史編寫組, 『中國歷代軍事家』(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 pp.412-431.

80) 田昭林, 「諸葛亮的八陣圖」(『軍史歷史研究』第二期, 1999), p.124.

그래서 마룡의 편상거를 중심으로 팔진도 戰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보았다. 먼저, 편상거에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어도 쇠뇌와 활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쇠뇌는 편상거에 고정시키고 활은 군사들이 휴대하였다. 먼 거리에 있는 적은 쇠뇌로 사살하고 중·근거리에 있는 적은 활로 쏘았으며 백병전에는 창이나 칼과 같은 병장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도 수록되어 있다.

제갈량은 기발한 착안을 하여 連弩와 木牛·流馬를 제작하였고, 병법을 추리하여 팔진도를 만들었다(『魏氏春秋』에 주석한 것을 보면 제갈량이 만든 연노는 元戎이라 불렀는데 鉞로 화살을 만들었고 길이는 여덟 치였다. 연노 하나는 동시에 10개의 화살을 발사하였다).⁸¹⁾

위 글은 元나라 郝經이 지은 『續後漢書』에 있는 내용으로 제갈량이 생존했던 시기와는 상당기간 격차가 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가 『魏氏春秋』라는 전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제갈량은 한 번에 10대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쇠뇌를 개발했는데 그 쇠뇌에 사용하는 화살은 길이가 여덟 치(약 24cm)이고 살촉은 鉞과 같이 반달 모양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화살들의 길이가 2자 6치(약 79cm)에서 3자(약 90cm)인 점을 감안하면 鉞矢는 매우 짧아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위력을 발휘한 조선의 片箭(애기살)과 유사한 길이다. 또한 <도5>와 같은 율시에 人馬가 맞으면 그 회전력으로 타격 부위의 상처가 확대되기 때문에 몸통에 맞으면 생명을 건질 수 없고 사지에 맞으면 절단될 위험이 따르는 강력한 살상무기가 되었다.

둘째, 마룡의 편상거나 제갈량의 팔진도에서 최소단위 병력은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점

<도5> 鉞矢



81) 위의 책, “亮 有巧思, 損益連弩·木牛·流馬, 推演兵法, 作八陣圖(原注魏氏春秋, 亮 損益連弩, 謂之元戎, 以鉞爲矢, 矢長八寸, 一弩十矢俱發).”

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명나라 후기에 척계광이 창안한 원양진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원양진은 고대의 전통 진법과 달리 척계광이 창안한 별개의 진법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명나라 隆慶 1년(1567)에 척계광이 穆宗에게 올린 <上應詔陳言乞普恩賞疏>에서 원양진을 일러 “옛 진법을 응용하여 만든 것입니다”⁸²⁾라고 하여 팔진법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청나라의 陸世儀 역시 원양진은 팔진의 방진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다.⁸³⁾ 그렇다면 원양진의 편성이나 진법은 팔진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팔진도는 원양진과 유사하게 8명의 병사들을 묶어 싸우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셋째, 팔진과 원양진이 같은 원리로 구성되었다면 팔진도는 方陣이니 圓陣이니 하면서 전개되는 대부대 전투대형이 아니라 소규모 전투 기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원양진은 원진이니 방진이니 하면서 전개되는 대부대 전투대형이 아니라 5-12명으로 구성된 격전술이기 때문이다.

마룡의 서량 원정은 후세의 정치와 군사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갈량의 팔진도는 어복강에 배치된 64 壘石 외에는 그 실체가 신비에 쌓여 있어 송나라 때는 神宗을 중심으로, 명나라 때는 장엄·용정·조본학 등의 문사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지만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갈량이 죽은 뒤 45년 밖에 안 된 시기에 마룡이 그의 팔진도를 보고 偏箱車를 만들어⁸⁴⁾ 서량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갖는 세 가지 의미는 첫째, 이민족들을 극복해 냈다는 것이고 둘째, 제갈량 팔진도를 이용하여 진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것이며 셋째, 『악기경』의 讚을 써

82) 戚繼光, 高揚文·陶琦 主編, 『戚少保奏議』(中華書局, 2001), p.25, “故於創艾之餘, 深求古法, 再可練習, 以圖後功.”

83) 陸世儀, 『思辨錄輯要』卷十七(『電庫』所收), “鴛鴦陣, 皆是古法, 必爲方陣, 八陣之正形也.”

84) 위의 책, p.144의 下右. “依八陣圖, 作偏箱車.”

서 팔진법의 원리를 규명해 주었다는 것이다.

V. 맺음말

蜀漢이 멸망한 뒤 曹魏를 찬탈하고 西晉을 개국한 무제 사마염은 孫吳를 정벌하여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고자 했으나 뜻밖에도 서량의 반란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서진의 군신들은 어느 누구도 서량을 평정하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지만 유독 마룡이 자청하여 무제의 신임 하에 서량의 수기능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그해 서진은 동오를 공격하여 다음해 4월에 역사적인 천하를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서진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마룡의 서량 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은 이 시대를 연구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마룡이 서량을 평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탁월한 군사적 식견이 바탕이 되었으나 그 바탕에는 제갈량이 남겨 놓은 팔진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갈량은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가 혁신한 팔진도는 촉한이 멸망한 시점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품의 하나로 魏晉에서 입수되어 西晉이 천하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제갈량의 팔진도는 문헌으로 남겨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실존여부를 의심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촉한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팔진의 유적이 몇 군데 전해지고 있었으며 夔州 어복강에 설치한 64개의 누석은 명나라 武宗 때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또한 『晉書』에서는 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글을 陳懿과 마룡이란 인물을 통하여 제시해 주고 있었다. 진협의 행적에서는 팔진도가 치밀하고 신속정확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마룡의 행적에서는 편상거에서 弓弩를 쏘고, 木屋으로 적의 矢石을 피

하며 싸우면서 진진하는 진법이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마룡의 편상거에는 쇠뇌와 활을 포함한 병장기들을 배치하여 먼 거리에 있는 적은 쇠뇌를 사살하고 중·근거리에 있는 적은 활을 쏘았으며 근거리의 적은 병장기로 싸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상거 안에 8명의 병사들을 배치하여 4명은 방어를 시키고 4명은 공격하는 진법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케 하였다.

마룡의 西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갈량의 팔진도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첫째, 제갈량의 팔진도는 치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둘째, 제갈량이 손에 들었던 白羽扇은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한 도구였다. 셋째, 팔진도는 편상거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을 것이다. 넷째, 편상거에는 連弩를 설치하여 적과 접전시에 다량의 화살을 발사했을 것이다. 다섯째, 편상거를 운용하는 인원은 8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섯째 팔진도는 작전술이 아니라 전투상황에 구분없이 사용하는 전투기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의 제한 등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제갈량이 혁신한 팔진도의 실체나 마룡의 서량 원정이 갖는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기에 이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Abstract)

Mǎlōng's military expedition to Xī Liáng and Zhūgěliàng's Bāzhèntú in Xī Jìn period

Hong, Eul Pyo

Simǎ yán, Jīnwǔdì who founded Xī Jìn intended to achieve his dream of uniting the whole land of China by conquering Dōng Wú but his south conquest plan failed due to a rebellion rising in Xī Liáng. At this time, there was nobody who stepped forward to put down Xī Liáng but Mǎ lōng took it upon himself. He recruited 3,500 soldiers, made a battle wagon with beveled plate, moved forward as making fights based on Zhūgě liàng's Bāzhèntú and suppressed Tūfāshùjīnénɡ's revolt breaking out in Xī Liáng.

In this way, although the driving force making it possible for him to conquer Xī Liáng was based on his excellent military insights, in essence, Bāzhèntú left by Zhūgě liàng accounted for the great portion of it. Like this, the fact that Zhūgě liàng's Bāzhèntú had not disappeared at the end point of his death or the fall of Shǔ Hàn, but put to use by being introduced to Xī Jìn could be checked.

So far, Zhūgě liàng's Bāzhèntú has shrouded in mystery as it wasn't left on documents but some clues could be found from the records of Chén xié and Mǎ lōng included in 『Jìn shū』. Above all, it was found that Bāzhèntú was not only neat but also accurate and had quick and adequate command structures in Chén xié's description and the records that he made battle wagons with

beveled plate, installed catapults in it and moved forward as fighting under protection against enemy's arrows and stones by making the wagons' roofs of wooden cages was found in Mǎ lōng's statement.

As a result of analysing Bāzhèntú throughout such records, following some conceptions could be drawn. First, Bāzhèntú equipped accurate command systems. Second, a flabellum(a fan made of white feathers) which Zhūgě liàng got in his hand was a means to command soldiers. Third, Bāzhèntú was centered around the battle wagons with beveled plate. Forth, catapults were installed on the battle wagon with beveled plate and it fired many arrows as closely fighting with an enemy. Fifth, eight soldiers were organized to operate the battle wagon with beveled plate. And Bāzhèntú was not mere tactics but a kind of combat skills that could be used abidingly in any kind of situation.

Aside from these, three meanings could be organized from Mǎ lōng's military expedition to Xī Liáng, the first was he overcame a horse-riding people, the second was he showed Bāzhènfǎ's effectiveness using Zhūgě liàng's Bāzhèntú and the last was Mǎ lōng certified that Bāzhènfǎ was not a desk theory but had a practical use.

주제어: 서진(西晉), 마릉(馬隆), 제갈량(諸葛亮), 팔진도(八陣圖), 팔진(八陣), 편상거(偏箱車).

關鍵詞: 西晉, 馬隆, 諸葛亮, 八陣圖, 八陣, 偏箱車.

Keywords: Xī Jin, Mǎ lōng, Zhūgě liàng, Bāzhèntú, Bāzhèn, the battle wagon with beveled plate.

(원고접수: 2013년 1월 9일,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통보: 2013년 2월 12일, 수정원고 접수: 4월 3일, 게재 확정: 4월 25일)